

나주 이어 신안군 노조도 전남도 감사 거부

“권한없는 감사 자치권 훼손” 도 “정당한 절차따라 감사 진행” 다른 시·군 노조로 확산 주목

나주시 공무원노조에 이어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전남도 종합감사를 못받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 공노 전남본부와 또 다른 시·군 노조로 종합감사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하는 만큼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안군 노조)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노조는 이날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안군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령에 위배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신안군 종합감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사전 자료조사를 하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시된 전남도 종합

감사와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남도 감사관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 노조는 “중복감사 금지, 지자체 수감 부담 절감, 감사 효율성 등을 위해 2010년 5월 행정감사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년간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고발과 별도로 전공노 전남본부, 시·군 노동조합과 연대해 권한 없는 전남도 종합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안군 입장이 아닌 노조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장비 점검 21일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문흥동에 위치한 제설장비 보관소에서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제설차량 살포기 시험가동 등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올 김장은 광주김치타운에서 하세요

다음달 16일까지 '김장대전'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2018년 행사가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 동안 광주김치타운에서 진행된다.

김장대전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가정에서 김장 담그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김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김치의 산업화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올 김장대전은 일반가정 김장 담그기, 기업이 단체의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 참가자들이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주회 측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수와 함께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치 원·부재료는 광주지역 농가에서 계약 재배한 배추와 무, 신안 비금의 천일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을 공동 구매해 사용하며, 100% 국내산 재료만으로 만든 김치 양념을 시판

들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재료는 대통령상 수상자가 직접 검수한다.

김장대전에서 판매되는 김치가 가격은 직접 담그기가 10kg당 5만6000원이며 김장 완제품은 택배비를 포함해서 6만원이다. 또 절임배추는 kg당 2000원, 김치양념은 kg당 1만4000원에 각각 판매된다.

각 가정의 입맛에 따라 첨가하고 싶은 재료들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도 광주의 김치에 대한 인기가 많아 선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신설

민선 7기 출범 두번째 조직개편

민선 7기 광주시가 출범 4개월 만에 민주인권평화국을 신설하는 등 두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21일 “민선 7기 시정방침과 비전을 구현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부된 기구 폐지, 통폐합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원은 기존 3636명에서 28명이 늘어 3664명으로 조정했다. 4실 6국 3본부 62과이던 기구는 4실 7국 3본부 67과로 1국·5과가 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주인권평화국을 신설하고 노동협력관, 평가담당관, 민주인권과, 남북교류협력과, 도시정비과, 문화기반조성과 등 5개과가 신설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1부 4과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2부 6과로 늘리면서

관리부와 안전관리실, 공사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혁신도시 협력·지원 사무를 담당할 혁신도시지원단이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관되며, 기존 여성청소년가족관실이 담당하던 청소년 관련 사무도 자치행정국에서 맡게 된다. 기존 혁신도시담당관에서 맡던 균형발전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맡았던 노동정책 총괄 관련 업무는 신설된 노동협력관으로 넘어간다.

문화예술 진흥과 공연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진흥과에서 문화도시정책관으로, 의료관광 관련 업무가 건강정책과에서 미래산업정책과로, 도시개발·도시정비 업무가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옮겨간다.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 광주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 금고 선정 잡음’ 김삼호 구청장 사과

광주 광산구가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자 21일 김삼호 구청장이 ‘선정 과정에 오점을 남겨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사과문을 통해 ‘계약체결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계류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 금고 선정위원 명단을 유출한 관련 공무원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만큼 진행중인 내부감사와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다만 능협도 사전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로 만남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능협측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을 하는 등 정당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 당일 관내 능협 조합장들이 구청을 향의 방문한 뒤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능협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명단 유출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광산구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번 구 금고 선정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평화와 번영, 여성의 힘으로!’ 전남 여성대회 열려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21회 전라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평화와 번영,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이형선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 기초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19명에게 전남지사상을, 지역사

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기여한 우정단 (주)인동주마를 대표에게 올해의 여성상을, 여성 경제활동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김중숙 전 한국걸스카우트 전남연맹회장에 동백대상을 수여했다.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여성이 사회 전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보장받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아시아인이 바라보는 아시아

아시아문화국제 사진공모전

2018. 11. 13(화) ~ 11. 25(일)

홈페이지(www.asiaphoto.kr) 내 온라인 접수

응모자격 국내를 포함 아시아인 누구나

주제 아시아의 삶(Life of Asia)

접수기간 2018. 11. 13(화) ~ 11. 25(일)

심사발표 2018년 12월 초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전시기간 2018. 12. 11(화) ~ 12. 25(화)
※ 온·오프라인 전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시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이커스페이스

출품규격 1) 컬러, 흑백, 스마트폰, 필름 등 형식에 관계없이 촬영된 디지털 이미지는 모두 출품 가능
2) 출품사진은 3MB이상(해상도 3000pix 이상, JPG파일)
3) 필름사진은 규격 조건에 맞춰 스캔 후 JPG파일로 등록
4) 스맷물(1컷 구성) : 1-3점 (한 컷씩 별개 심사)
※ 최대 3점까지 출품 가능
5) 시리즈물(7컷 이상) : 1점 (전체 컷을 1점으로 보고 심사)
※ 최대 1점까지 출품 가능

출품료 없음

접수방법 1) 공모요강 숙지 후 홈페이지(www.asiaphoto.kr)에서 출품신청서 다운로드 - [스맷물], [시리즈물]
2) 온라인 접수 : 출품작품 업로드(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 출품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업로드)
- 파일명은 출품자명_생년월일_형식 (출강동_YMMDD_출품신청서 또는 사진파일01)
3) 필수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재공 동의서
4) 접수확인인 SMS로 발송 됨

문의처 홈페이지(www.asiaphoto.kr) 내 게시판

시상내역 총 11,500,000원(총 43명)

대상	1명	광주광역시상장과 상금 300만원
특별상	2명	광주광역시상장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0명	상장과 상금 50만원
입선	30명	상장과 문화상품권 5만원

※ 재세공과금(22%)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 우수상 이상은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입선은 출품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제외 및 입상취소

- 1) 접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수상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 반환
- 2) 출품자가 타인의 작품을 제출하는 등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 3) 출품작품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적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경우
- 4) 다른 작품과 표절시비가 발생하거나 다른 작품과 매우 유사한 경우
- 5) 출품작품이 판매 계약되어 있어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저작권 등 법적권리

- 1)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해 공모전과 수상자 전시관련 홍보인쇄물, 보도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2) 수상작은 홈페이지에 상설 전시되며, 이 경우 사진촬영은 원본사이드가 아닌 저용량으로 전시된다.
- 3) 저작권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생기는 출품사진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 4)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행사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 5) 본 공모전에 출품하는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최/주관 (사)아시아문화, (주)아는컴퍼니